

위대한 김일성 -

로동신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일주의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김정은동지 만세!

제105호 【루게 제24883호】 주제 104 (2015)년 4월 15일 (수요일)

사설

우리 당과 조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업적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조선로동당기와 함흥공화국기가 힘차게 나뭇가지에 온 나라 강산에 수평홍고, 수평영생의 송가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며 민족재생의 은인,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와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도 20세기가 낳은 불세출의 위인, 만민의 아버지를 우러러 영생을 기원하고있다.

4월 15일은 반만년의 유구한 조선민족사에 특기할 대목의 날이다.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심으로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주체년호로 빛나는 현대조선의 장엄한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도,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도 이날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당과 조국의 70년 역사를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속에 돌이켜보면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 나갈 절세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대량 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수십성상 독창적인 사상과 비범한 명도로 우리 당과 조국을 이끄시며 시대와 혁명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회세의 정치원로, 결출한 수령이시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역사의 준엄한 년대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수놓아오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려운 풍부한 경험과 진통에 토대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신것은 거대한 정치적사변이었다. 사상 리론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정치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이끄시였기에 우리 당과 조국은 장구한 기간 세계적인 정치공파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불패의 위용을 펼쳐올수 있었다.

당과 인민을 령도하여온 정치활동력사에 있어서나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린 업적과 만사함을 매혹시키는 뛰어난 인품에 있어서 우리 수령님 같은 절세의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 세계가 한결같이 우러르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여온것이야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당과 조국의 존엄을 온 누리에 펼치신 혁명의 대성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시고 혁명령도의 전 로정을 투철한 자주정신으로 수놓아오셨다. 진인미담의 길을 헤쳐야 했던 조선혁명에는 기성의 리론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수행할수 없는 어렵고도 간고한 투쟁이었다. 사대와 교조로 얼룩진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철저히 우리 식으로 풀어나오셨다.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제가 철저히 확립되고 당대렬의 조직적공고화가 실현된 강력한 정치적잠모부로 위용떨치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짧은 역사적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던 침에 한 환경속에서도 시종일관 자주적대를 굽히지 않고서 우리 당과 조국의 권위와 존엄을 높이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은 세계를 끝없이 경탄시켰다. 자주야말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의 뚜렷한 상징이며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청송하는 시대어이다.

자주의 길은 우리 당과 조국의 절대불변의 진군로이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과 활동에는 건결한 자주정신이 비껴있으며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도 자주의 궤도위에 있다.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끄떡없이 자기 할 소리를 다하며 자주시대의 흐름을



주도해나가고있는것이 주체조선의 긍지높은 모습이다. 우리 당과 조국은 이 세상 끝까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항로를 따라 자주의 기치높이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총대중시, 군사중시령도로 우리 당과 조국의 백승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주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서도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탓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노의 설움을 강요당해야만 하였던것이 바로 한 세기전의 우리 인민이다. 주체 100년대는 우리 인민에게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는 진리를 뼈에 새겨준 잊을수 없는 년대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곧 건군의 역사이고 총대의 위력으로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과감히 헤쳐온 승리의 역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총대중시, 군사중시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방대한 시대적과제가 나서도 후호도 드릴수 없는 근본원칙이었고 전략적로선이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부터 시작하여 무적의 혁명강군을 키우시고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부터 자위적국방력강화에 선차적힘을 넣으신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계《최강》을 떠벌이던 미제국주의를 타승하는 군사적기적을 안아오고 혁명의 년대들마다 승리의 전통을 빛내어올수 있게 한 원천이었다. 지난 20세기에 우리 인민이 맞이한 모든 영광과 온 누리에 힘있게 파시던 우리 당과 조국의 필승의

기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주체의 붉은 당기를 혁명의 제일군기로 휘날리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해나가는 선군혁명의 주력군, 역적의 지지점으로 되고있다.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을로만 총구를 내대고 나아가는 주체혁명의 당군, 열렬한 조국애와 원수적결의 의지로 만장약된 백두산총대,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에서 태어나고 장성강화된 우리 혁명무력의 본태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이념위선의 사상을 지니시고 우리 당과 조국의 역사를 인민사랑으로 빛내여 주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인민위선,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을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 위업으로 여기시고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우리 조국을 인민이 주인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건설하시였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하는 우리 당의 붉은 기폭과 인민이라는 고귀한 부름과 더불어 빛나는 우리 조국의 국호에도, 인민의 꿈과 리상이 응축되어있는 이 땅의 모든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인민관이 새겨져있다. 인민을 위한 천만고생을 락으로 여기고 미가 오나 눈이 오나 인민을 돌보시며 명절날, 생신날 마저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러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인민행렬자의 기적

소리는 오늘날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피고 빛내여주는 은혜로운 품이며 우리 조국은 수천만 아들딸들이 영원히 안겨갈 참된 삶의 보금자리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인민의 요구와 지향의 집대성되어있고 국가의 모든 시책도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실시되고있다.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우리 당과 조국은 오늘날도 매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놓아갈것이다.

대대로 수령복, 태양복을 누리는것은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최대의 행복이며 크나큰 자랑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과 조국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오신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명실공히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제가 철저히 확립된 혁명적당으로, 우리 조국은 력사의 온갖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사회주의강경보루로 전변되게 되었다. 우리 당을 주체혁명의 강위력한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조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최대의 공적이다.

오늘 우리 당과 조국은 또 한번의 백두산혁명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김일성, 김일성동지의 당, 김일성, 김일성조선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의 김정은시대는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열어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위대한 계승의 시대, 김일성동지식, 김일성동지식으로 창조하며 비약해나가는 영웅적투쟁의 시대, 우리 당의 존엄과 권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우리 조국이 천하제일 강국, 인민의 탁원으로 일떠서는 장엄한 변혁의 시대로 영광떨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당과 조국을 위대한 태양의 존함과 업적으로 빛나는 영원한 수령의 당, 백두산대국으로 만방에 떨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의 당건설, 부강조국건설업적을 결집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지침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간데 우리 당과 조국의 강화발전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김일성-김일성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명도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특수하며 당과 국가활동을 철두철미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진행해나가는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들의 부강조국건설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우리 당과 조국이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원수님 따라 선군혁명천만리길을 역세게 걸어가는 열렬의 투사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당중앙과 사상과 슬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신념과 의리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드세차게 벌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은 곧 실현이라는것을 힘있게 파시하여야 한다.

뜻깊은 올해를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당장전 일흔들을 맞은 올해에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모든 당 조직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결사관철하여야 한다.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날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자립경제의 토대를 더 굳건히 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도 발동하여 올해에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국건설, 문명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쳐 생산성향상의 동음, 사회주의전진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가야 한다. 누구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한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떼땀이 떨어서야 한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온 겨레의 숙원이며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업이다. 우리는 조국통일 3대헌장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며 온갖 원수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백두의 행군길을 뜻깊이 이어나가는 우리 당과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김원홍동지, 김춘삼동지, 박영식동지, 조경철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향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103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방열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에 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에 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생전의 모습

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군혁명의 제일기수, 돌격대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침으로써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 천하제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인 평양체육관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전진미담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에 이끄시어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존엄과 승리, 번영을 위한 만년초석을 굳건히 다져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대회장전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록에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모형과 《태양절경축》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리영길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박범기동지,

김정해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영웅들, 집권자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일군들, 근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윤길상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장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광병들, 평양 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혁명렬사유가족들과 로력혁신

자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외국 손님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중앙보고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따라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위용만방에 펼쳐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의지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의 탄생 103돐이 되는 2015년 4월 15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그이께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세계사주화위업실현을 위한 전로정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과 바치신 커다란 로고에 대하여 감회깊이 들이켜보게 됩니다.

나는 각하께와 그리고 친근한 귀국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각하께서와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친근한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뜻깊은 기회에 수리아아랍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협조관계가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계속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5년 4월 13일

디마스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과 그이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3돐에 즈음하여 바샤르 알 아사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14일 따맘 쏘레이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네발자력갱생연구회대표단, 몽골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일행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들을 네발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인 수비쉬 까지 쉬에스타 단장과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

산협회 업니고비도지부 책임자인 프. 민즈바드가르 단장, 워린 굽 마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대표단과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대표단이 공동명의로 선물을 드리였다.

본사기자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명판준공식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써주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명판준공식이 14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모셔져있었다.

준공식에는 안정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일룡경공업상,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로력혁신자,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명도자》노래주악으로 준공식이 시작되었다.

준공사를 지배한 민일홍이 하였다.

연설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주호를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최우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

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써주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명판준공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어머니처럼 살며 투쟁하려는 공장로동계급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시고 공장에 백두산대장군의 존함을 모시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어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소 합숙건설의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어 로동당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로 하루빨리 일떠서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으며 합숙에서 생활하게 될 로동자들을 위해 문화용품까지 보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친필로 쓰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라는 명판글까지 종업원들에게 안겨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주요같은 글밭에는 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의 입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숭고한 념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인민생활향상의 주요전구,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에서 시대의 척후병이 되기를 바라시는 천출위인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깃들여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관철을 위한 총동력을 힘있게 벌려 공장이 맑은 천생산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에서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더욱 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주체혁명의 만년초석은 대를 이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다

중앙 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이 세기와 세대를 이어 힘있게 나뉘고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자랑찬 승리와 전진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3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은 우리 인민이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태양을 맞이한 대통은이었으며 진보적인류의 앞길에 자주시대의 려미가 밝아온 세계사적 사변이었습니다.

현대조선의 새 기원이 열린 민족최대의 경로의 날을 맞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남대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영원한 어머니로, 회색의 천출위인으로 높이 칭송하며 태양을 가장 크고 의의깊은 명절로 경축하고있습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도의 마음을 담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격동하는 20세기 혁명운동의 중심에서 조국과 민족, 인류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시고 그 빛나는 미래를 열어주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장에서 탄생하시어 일찌기 10대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장장 70성상 조국과 인민을 위한 전인미답의 초행길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와 세계정치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걸출한 사상과 영도, 애국애민의 로고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서고 식민지노예로 이름조차 빼앗겼던 우리 인민은 존엄높고 행복찬 인민으로 되었으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는 거대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는 그 어떤 토대로, 선한 경험도 없는 말그대로 빈터우에서 우리 혁명의 천년만세를 담보하는 재부를 당대에 마련하신 불세출의 위인의 성스러운 한성이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그 전도에 대한 높은 사명감을 안으시고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어 과학적인 지도사상과 필승불패의 전통,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와 강한 국력을 전면적으로 마련하시어 후손만대의 유산으로 물려주시었습니다.

우리 조국과 인민의 모든 승리와 고귀한 전위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맹수 없이 결부되어 있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광휘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시어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에게 참다운 삶과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십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태동하는 새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

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은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총대우에 민족의 자주독립도 혁명위업의 승리와 있다는 혁명원리를 천명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가장 올바른 해답을 주셨습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주체의 체계판과 혁명운동의 근본원리와 원칙을 과학적으로 명시하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과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를 위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방법론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명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자주시대혁명의 백과전서로, 위대한 전투적기치로 되었습니다.

역사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에 이바지한 진보적인 사상들이 적지 않았지만 주체사상과 같이 온갖 어리러온 사상적조류가 범람하는 속에서 자기만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인류의 사상정신생활과 혁명실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한 혁명사상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20세기를 자주의 길로 향도하여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오늘날 21세기의 진로를 휘황히 밝히는 완성된 혁명사상으로, 인류사상의 최고정화로 빛나고있습니다.

업축한 시련속에서도 우리 조국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찬 진군으로 변신을 떨치고 세계적범위에서 반제자주와 반전쟁화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현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선견지명과 주체사상의 진리성을 뚜렷이 확증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신 강철의 형상이시며 천재적인 전략가이십니다.

두자루의 권총을 혁명유산으로 물려받으시고 결연히 선군혁명에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피어린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시었으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짓부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어 민족의 영예를 높이 떨치셨습니다.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고 우리 사회주의건설의 밝은 앞길을 열어놓은 민족사적사건이었으며 식민주의침략해방운동의 새시대,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린 세계사적사건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장구한 기간 반제반미대결전의 최전방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전쟁도발행동

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성을 굳건히 지켜오셨으며 력사의 준엄한 광풍을 맞받아 사회주의불온기를 결집히 고수하는 시대적도발을 창조하시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역사는 식민주의침략해방투쟁과 주권전투를 위한 지렬한 계급투쟁, 조국수호의 준엄한 전쟁과 사회주의전투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비롯한 모든 력사적투쟁에서 오직 승리만을 안아오신 결세의 위인의 영웅사적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강력들을 겹겹마다 통폐하게 쳐부수고 언제나 승리하는 위대한 전진의 시기를 열어놓으신 선견적령장 김일성동지님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우리 조국과 인민은 오늘날도 래일도 영원히 영웅조선, 영웅적인민의 백승의 기상을 높이 떨쳐갈 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혁명의 정치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강위력한 정치적투쟁을 마흔하신 회색의 정치가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전통에 토대하여 해방후 빠른 기간에 주체혁명의 혁명적당과 국가정권,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시었으며 로속하고 세련된 명도로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전당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의 혁명적당이요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영도를 빛나게 실현하고 우리 인민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확신성있게 향도해나가는 가장 권위 있고 위력한 당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세우시고 공화국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주체가 활로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체, 인민의 리의와 호조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로 헌명하게 이끄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밑에 우리 인민군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결사보위하는 일당일제의 전투대로 다져나갔으며 력사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우리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하고 백년 싸워 백년 다지는 혁명강군의 전통과 위업을 힘있게 떨쳐왔습니다.

전당, 전군, 전군위업이 실현된 때로부터 지난 수십년간 세계를 휩쓰는 정치경제적공과와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일력, 모진 시련들이 겹쳐졌지만 우리 당과 국가, 군대는 그 어떤 역풍에도 끄떡하지 않았으며 백두의 붉은기를 역세게 추켜들고 승리의 력사문을 아로새겨왔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 인민군대는 그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권위가 절대적이고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토대가 튼튼하기에 지난 세기에 이어 오늘날도 상상을 초월하는 난국을 파관직 뚫고 사회주의수호와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는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찌기 수립 창조와 건설의 영예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두 차례의 복구건설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명도하시어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진시키시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정치와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떨쳐주시었습니다.

인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정치신조로 간직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철저히 옹호실현하시고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하시어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이끌어오셨습니다.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쉬임없이 이어가신 어머니수령님의 애국헌신의 결사에 현대적인 도시와 마을, 공장과 농어촌들이 일떠서고 후손들이 대를 두고 덕을 보게 될 모든 재부들이 마련되었으며 사회주의가 우리 인민의 생활로, 생명으로 깊이 간직되게 되었습니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력사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그 사상적기초와 전통에 있어서나 정치적전진과 군사적토대에 있어서 가장 공고한 사회주의이며 인류의 리상이 집대성된 성공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한생이 어려웠던 것은 애국유산인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인민의 공과 더불어 없었으며 변명할것이며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자주와 진보의 기치로 세계를 이끄는 위용떨쳐왔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대단함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인류자주위업을 힘있게 이끌어오신 세계혁명의 원로이십니다.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신행을 기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대헌장을 제시하시었고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뭉쳐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겨나갈 수 있는 진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자주와 국제적정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공평한 국제관계수립을 위한 투쟁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어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위인, 세계혁명의 공인된 명도자로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국

과 민족의 부강발전과 자주시대의 즐거운 미래를 위한 만년초석을 굳건히 다져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태양으로 천세만에 영생하시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드림철저히 옹호실현하시고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밑에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십성상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명도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고 김일성주의기치밑에 당과 국가, 군대 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전환을 안아오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선군의 보검으로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불패의 정치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일떠세우시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활로를 열어주시어 영광스러운 김일성주의의 새로운 강성변영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숭고한 총정과 도덕의리,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로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연히 높이 모시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필생의 뜻과 위업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나가도록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십니다.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시며 천하제일강국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우리 조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력사가 줄기차게 흐르는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무궁번영할것입니다.

백두밀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은 오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높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동지를 힘있게 품어들이고 불러들여주시어 수령님께서서 불러주시는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으로 삼아 투쟁하는 한없는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안고 어머니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추만대에 높이 받들며 모셔야 하겠습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더 훌륭히 꾸리고 결사보위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조국과 민족의 만년체보로 끝없이 빛내어 나감으로써 태양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어머니수령님의 한평생의 구상과 념원을 끝까지 빛나게 실현하며 당건설과 국가건설, 혁명투쟁건설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철두철미 수행납신, 장군님사대로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는 혁명의 영원한 교과서이며 그대란 한번만 다가갈 때이며 그대란 한번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니 영원히 기억하고 실천을 통하여 체득한 과학적리이여 확고한 신념입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온몸을 불태우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걸으며 혁명의 천만리길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꽃피어 나가야 합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옹호보위하며 혁명적신념과 순결한 망심으로 만드는 참된 선군혁명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명도 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천만군인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사상과 승리를 받들고 같이하는 일심단결의 성세를 더욱 첩철같이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율해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

호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승전포성을 높이 울림으로써 조국해방 일꾼들과 당장친 일꾼들을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어야 하겠습니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투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자위적국방력을 백두산으로 강화하며 경제강국, 문명강국과 민족의 만년체보로 끝없이 빛내어 나감으로써 태양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어머니수령님의 한평생의 구상과 념원을 끝까지 빛나게 실현하며 당건설과 국가건설, 혁명투쟁건설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철두철미 수행납신, 장군님사대로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는 혁명의 영원한 교과서이며 그대란 한번만 다가갈 때이며 그대란 한번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니 영원히 기억하고 실천을 통하여 체득한 과학적리이여 확고한 신념입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온몸을 불태우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걸으며 혁명의 천만리길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꽃피어 나가야 합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옹호보위하며 혁명적신념과 순결한 망심으로 만드는 참된 선군혁명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명도 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천만군인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사상과 승리를 받들고 같이하는 일심단결의 성세를 더욱 첩철같이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율해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 각 도, 시, 군, 연합기업소들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14일 각 도, 시, 군, 연합기업소들에서 진행되었다.

보고대회 및 보고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포고회 및 보고회장들에 나붙어있었다.

모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 하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연합기업소일꾼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보고대회 및 보고회들은 《김일성정권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해당 단위의 일꾼들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을 성대

히 경축하고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어머니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일찌기 10대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전인미답의 초행길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와 세계정치사에 영원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어린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었으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짓부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주시었다고 강조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전쟁도발행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성을 굳건히 지켜주시었으며 력사의 준엄한 광풍을 맞받아 사회주의 불온기를 결집히 고수하는 시대적도발을 창조하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

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전통에 토대하여 해방투쟁은 기간에 주체혁명의 혁명적당과 국가정권,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시었으며 로속하고 세련된 명도로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쉬임없이 이어가신 어머니수령님의 애국헌신의 결사에 현대적인 도시와 마을, 공장과 농어촌들이 일떠서고 후손들이 대를 두고 덕을 보게 될 모든 재부들이 마련되었으며 사회주의가 우리 인민의 생활로, 생명으로 깊이 간직되게 되었습니다에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드림없이 계승되어왔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시대와 력사의 뜻입니다.》

보고자들은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으로 삼아 투쟁하는 한

없이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안고 어머니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추만대에 높이 받들며 모셔야 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옹호보위하며 혁명적신념과 순결한 망심으로 만드는 참된 선군혁명투사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같이하는 일심단결의 성세를 더욱 첩철같이 다져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각지의 축산간지들과 양고기, 버섯생산기지를 정상운영하여 생산을 높임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기여할데 대하

상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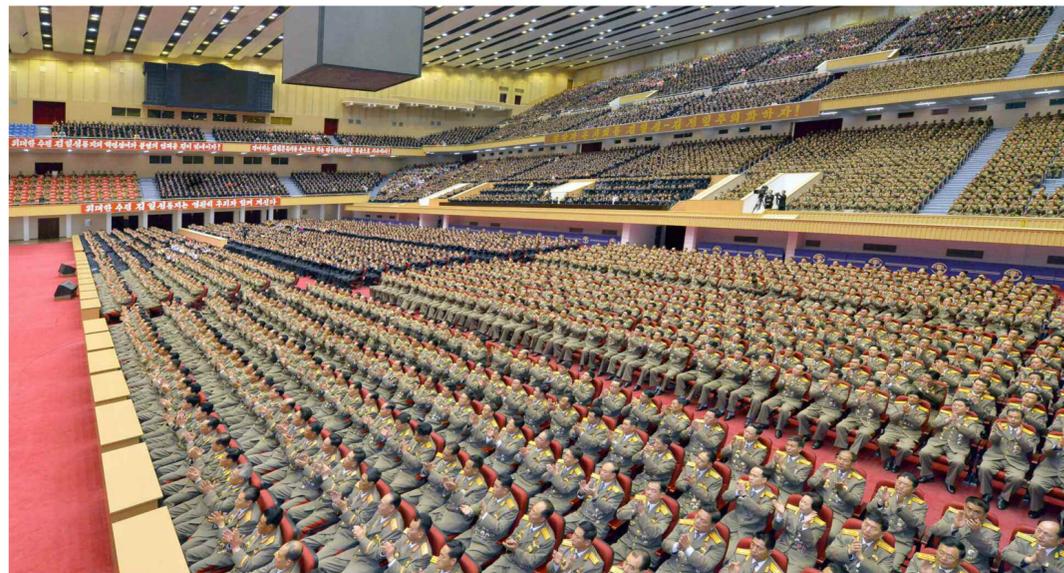
원산군민발전소, 려성강청년 3호, 5호발전소건설과 봉매도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 도유아원과 교육원건설, 장자산소년만야영양소와 배울의 천리강학소년군정제공사 등 중요대상건설을 앞당겨 끝내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며 사회주의애국립운동과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물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것이라고 말하였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도에 맞게 자기 지방과 지역의 특색을 살려 도와 시, 군들을 훌륭히 꾸리며 거리와 마을, 일터와 공원, 유원지들을 아름답게 변모시키고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어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제가 멋있게 들러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대회 및 보고회들은 《수령님에 영원히 빛과 함께 계시세!》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은 거리의 절절한 그리움이 영생축원의 꽃바다되어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꽃없이 굽어쳐흐르는 이 땅에 민족최대의 명절 태양절이 왔습니다.

경사로운 이 아침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녀의 전위 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우리 민족과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어버이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과 반미대결전, 조국통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향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유서깊은 민족의 성도 영양의 만경대에서 탄생하신 주제1(1912)년 4월 15일은 우리 겨레가 만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하늘이 낸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대통운의 날이었으며 인류사시대의 려명이 밝아온 일대 사변의 날이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의 탄생은 가장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만고불멸의 업적으로 아로새겨진 불세출의 위인, 절세의 애국자의 거룩한 혁명생애로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사상가로서, 희세의 정치가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자로서의 인류의 앞길을 밝히고 민족의 무궁무진한 사상의 힘, 창조적업에 의하여 려사가 전진하는 주제시대, 자주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선 일찌기 선군의 총대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강적들과 투쟁의 대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여 주시었으며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로 강대한 사회주의보루로 세계정상에 높이 올려세우시고 세인이 우러러 경탄하는 근로민중의 지상락원으로 전전하시었습니다.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누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전리해인의 비범한 예지로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자주통일의 앞길을 활히 밝혀주시었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도 조국통일문전에 귀중한 친필을 남기시며 후대들에게 부강하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물려주시며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주석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생애는 온 겨레의 마음속에, 통일조국역사의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진정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주제년호로 수놓아진 현대조선의 새 려사를 자주와 존엄, 긍지와 영광의 최정점으로 빛내여 주신 가장 절충한 수령이시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인류의 대성인이십니다.

어버이주석님의 숭고한 애국위업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하고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져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한없이 고결한 충정으로 온갖을 불태우시며 수평영생위업의 새 려사를 창조하시고 사회주의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시어 어버이주석님의 태양의 려사가 꽃없이 흐르도록 하시었습니다.

어버이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극복하는 위업으로 깃부서버리시고 세 세기 통일리정표를 굳건히 세워주시었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새시대, 6.15 자주통일시대를 펼쳐시어 온 겨레의 가슴속에 통일에 대한 굳은 확신과 희망을 안겨주시었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되고 성장 수심성상 세기를 이어가며 백승을 펼쳐온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일성장군님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승계되고 있습니다.

승고한 도덕의리와 충정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영도에 의하여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의가 백전백승의 기지로 무궁토록 빛을 뿌리며 주체의 최고성자인 금수산태양궁전

이 수령영생의 대기범비로 꾸러지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시려는 철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김일성애국주의가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조선속국창조의 열풍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편이 안아오시며 근로민중의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틀어쥐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새 전쟁도발소동과 반공화국악살책동을 단호히 쳐갈기며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파시하고있는 이북군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남민중은 희세의 백두명왕을 대를 이어 모시고 있기에 북이 반미대결전과 조국통일대전에서 반드시 최우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주와 존엄으로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며 경제와 민중생활향상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이북의 경이적인 현실은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영도의 크기가 아니라 인구의 다수성의 위력으로 해결될수 있다는 려사의 철리를 실천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기에 경사로운 태양절의 이 아침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를 일심충정으로 받들어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일성장군님을 영원히 거레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백두산대국의 영성이신 절세위인들께서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우러르며 삼배 찌부러나겠습니다.

우리들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새로운 려사적전변기의 요구에 부응하여 반제민전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사상의 전일체, 행동의 통일체, 강철의 전위대로 더욱 단결하여 다져나가며 남녘민중의 가슴속에 원수님의 천출위업을 깊이 심어주시어 이 땅에 위인정조의 열풍이 더욱 뜨겁게 휘몰아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불멸의 영도업적을 절절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특히 조국해방 70주년과 6.15공동선언발표 15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민족끼리 기치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온 국민을 한창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들은 반미자주화, 반전평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분쇄하며 날로 악랄해지는 종미사대대국세력의 반공화국정찰모략책동과 《인원》소동, 동맹국책책동에 무자비한 철수를 안기겠습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민족의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언제나 승리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적필승의 선군영도자이신 원수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는 겨레의 순결무구한 충정성이 있기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민중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김일성주석, 김일성장군의 영원불변한 변역과 통일강국을 위한 위용명철 삼천리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제104(2015)년 4월 15일 서 울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의 려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일흔셋과 주체적해방교포운동조직인 총련을 무어주신 예순셋을 맞은 뜻깊은 해의 태양절을 감회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삼배 투쟁해온 영광찬란한 애국애국의 나날들을 되새기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주치는 그리움으로 한없이 가슴설레이고있으며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셔나갈 불같은 결의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제일본조선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주제1(1912)년 4월 15일은 우리 조국의 앞길에 광휘로운 서광이 밝아온 민족사적대통운의 날이며 자주시대의 태양을 맞이한 인류사적대통운의 날입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모셔 오선혁명의 승리의 진로가 마련되고 주체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었음을 깊이 새기면서 백두산절세위인을 수령으로 모셔온 행복으로 하여 가슴차차 울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정령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비범한 예지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히고 현대력사를 자주의 궤도에 올려세우신 절충한 사상가로서, 위대한 실천가이시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시시고 조국방위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민족재생의 은인, 전설적영웅,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시고 온 겨레를 한몸에 안아주시는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세계 수많은 나라 당 당 무궁수반들과 인사들, 사상과 정견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교결한 그 인품에 매혹되고 열렬히 흠모한 만민의 태양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적품모와 시대의 앞길을 빛나게 개척하여오신 혁명활동력사의 위대성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 려사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20세기의 가장 절충한 수령으로, 절세의 위인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망국노의 설움을 안고 일본땅에 끌려와 온갖 시와 천대만을 당한 재일동포들에게 잃었던 조국을 되찾아주시고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안겨주시는 재생의 은인이십니다.

주체적인 조선전환방향을 제시하시고 주체의 산아인 총련을 무어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에 쌓아올리신 가장 빛나는 위업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거듭 주시었으며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조국애로의 귀국과 왕래의 배급까지 열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총련이 나아가 앞길을 활히 밝혀주시고

천어버이사람으로 재일동포들을 자애로운 한몸에 안아 보살펴 주시었기에 총련은 세계해방교포운동의 본보기, 애국애국의 선각자로서의 영예를 떨치면서 예순번째의 년륜을 새길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를 이어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는 최상최대의 행운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시련을 열어놓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온갖 로고를 다하여 이끌어 주신 총련애국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 승리를 향하여 기세충천하게 벌려나가려는것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드물지 않는 의지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굳게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총련을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동포조직으로 더욱 단결하여 다져나가겠습니다.

총련은 주체혁명위업과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보다 철저히 세워나가겠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 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기에 선군으로 존엄높은 사회주의조국은 필승불패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해나가겠습니다.

총련은 새 세대에 걸쳐 총련위업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과 총련의 전통을 알려주고 그들이 총련위업의 바름, 애국애국의 계투봉을 굳건히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민족교육사업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 확고히 하여주고 전통적인 힘으로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키며 동포사공인들이 애국애국운동의 주력군으로서의 책임과 분분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김일성애국주의로 가슴을 불태워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전민적적운동에 적극 기여하고 일본인민들과의 우호친선을 두터이 하는 대외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벌려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일심단결과 총련일체의 위력으로 반동세력의 총련외해책동을 짓부셔 《총련결성 60돐을 새로운 전성기제로서의 비약의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혁신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총련결성 예순셋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총련영도업적을 빛내이고 재일조선인운동은 영평스러운 김정은시대로로 비약하는 도약대로 장식하겠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간결한 소망은 사회주의조선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 총련애국위업을 최후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영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불같은 충정과 용의 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104(2015)년 4월 15일 일본 도쿄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대성산혁명렬사를 참관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난 만경대에는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이 끊없이 흐르고 있었다.

축전 참가자들은 먼저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의 묘,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묘에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헌화하였다.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고 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보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진 고통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귀한 혁명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 개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가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각지의 태권도선수단을 비롯한 25개 단체에서 선발된 600여명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선수권대회에서는 태권도, 바둑을 비롯한 경기들이 태권도전당 등 여러곳에서 진행되게 된다.

개막식이 14일 태권도 전당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해동지와 김용진대각부총리, 판계부문일군들, 선수, 감독들과 시내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 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민족무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핌속에 태권도가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온 세상에 떨치며 날로 발전하고있는데에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려사적인 사한에 제기된 전투적태세를 가슴이 세우고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함에 대하여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선수, 감독들이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경시에 다져온 사상상전선, 육체 기술, 전술적능력을 최대로 발휘해나감으로써 높은 경기성적을 이룩하여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의 노래가 주악되는 속에 선수권대회 상징기발이 게양되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선수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이어 태권도국가 종합선수단 선수들을 열여섯사람 단 사합들의 시범출연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의 인디아공화국방문과 관련한 공 통 보 도

리수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일행이 슈바이츠와라지 인디아공화국 외무상의 초청에 의하여 2015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인디아공화국을 공식방문하였다.

리수용외무상은 슈바이츠와라지의무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편리한 시기에 방문과 아공화국 부대통령을 의례방문하고 외무상과 회담하였으며 일부 기업가들을 만났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정지, 경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바치신 절세위인의 위대한 한생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태양민족의 시원이 열린 민족최대의 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온 겨레의 경모심이 더욱 뜨거워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국통일운동사에는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고귀한 헌신의 자취가 려력히 새겨져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만 경 대 방 문

차상부부장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귀한 애국적업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만경대를 방문하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의 마음이 다시금 되새겨진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기자와 회견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란 과거를 불문하고 민족적합심과 애국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고 보석처럼 빛내주시고 통일애국의 길로 인도해주시는분도 주석님이시었다. 언제나 민족을 중시하시는 그 숭고한 빛에 끌려가거 동족대결의 앞길에 있던 정경까지 참된 애국의 길에 들어 서게 된 이사진들은 오늘도 겨레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고, 한편 정을 주고 믿음을 주시던 끝까지 품어주시는 위대한 태양의

가슴이 울려오시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안고 태양의 존엄과 더불어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있는 불멸의 꽃 김일성동지꽃바다를 이룬 축전장을 보는 감동속에

다함없는 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분이라고 말하였다.

주마공화국제사관 무관 로만 오스발도 히메스 오르메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를 흠모하고 따르는 조선인민과 세

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는 우리의 함께 계신다. 영웅적인 조선인민에게 영망이 있으리라는것을 확신한다.

경제 및 무역참사단 단장인 바엘 레사코프 로씨야연방대사

우리베레 요니스카이트 오스트리아로조련평 좌익블럭 연방비서와 일행이 오스트리아로조련평 좌익블럭 연방비서일행 도착 14일 려차로 평양에 도착 하였다.

관 참사는 감상록에 나라의 최명절에 꽃축전이 진행되는 것은 조선이 번영한다는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인민이 정성껏 피운 김일성화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숭고한 경의이다고 했다. 이날 주조 외교단 성원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